

고2 문학 비상

1(1). 모란이 피기까지는 - 서술형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1. 이 시의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의 한계를 <보기>의 시적 화자와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십시오.

<보기>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2. 이 시에서 객관적인 자연 현상과는 맞지 않지만, 화자가 '마음으로 느끼는 주관적 진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행을 찾아 쓰고, 화자가 그런 주관적 느낌을 갖게 된 이유를 20자 이내로 서술하십시오.

3.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시구를 찾아 적고 그 구절의 의미를 서술하십시오.

<보기>
 역설적 표현은 논리적 모순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기법이다. 이러한 표현 기법을 통해서 작가는 숨어 있는 또 다른 진실을 독자에게 전달하려 한다.

4. 시적 화자의 정서의 변화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

모란이 피기 전	모란이 피었을 때	모란이 떨어진 후

<조건>
 작품의 본문에 나온 단어를 한 개 이상 사용할 것

5. 이 시의 시적 구조를 순환론적 세계관의 표현으로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고 그 원인에 해당되는 구절을 찾아 적으시오.

기다림 → () → 기다림

6. 이 시에서 모란이 상징하는 의미를 적으라.

<조건>
 · 본문에 있는 시어를 하나 이상 사용하여 적을 것
 · ‘~은 ~을 의미한다’의 형식으로 쓸 것

7. 화자의 수동적 인생관을 반영하고 있는 시어를 찾아 적고 화자의 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조건>
 · 부사어를 찾아 적을 것
 · 화자의 인생관을 모란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지어 서술할 것

8. 이 시에서 모란을 상징하는 시어들을 찾아 적으시오.

9. 이 시의 구조를 ‘기다림 → 슬픔 → 기다림’이라고 할 때, 슬픔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쓰시오.

<조건>
 · 앞뒤 두 어절씩 적을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가] ㉣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10. [가]가 <보기>를 수정한 것이라고 할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 차이점과 수정한 효과를 서술하십시오.

<보기>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봄을

<조건>

· ‘~을 넣어 ~을 강조하였고 ~을 ~으로 바꾸어 ~을 드러내고 있다’ 형태로 쓰시오.

11.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 적으시오.

<조건>

· 세 가지 이상 쓸 것
 · ‘~과 ~과 ~을 통해 ~을(를) 형성하였다’의 형태로 쓸 것

12. 위 시를 <보기>와 같이 이해할 때 ㉡~㉣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봄에 피었다 지는 모란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설렘과 기대감을 동반하지만 절정의 아름다움은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그 순간이 지나면 하강과 소멸의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 지상의 모든 존재가 지니는 공통적인 속성이다. 화자는 이를 인식하고 있기에 (㉡)은/는 아쉽고 안타까우면서도 찬란한 미적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화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 노래하고 있다. 이 ‘찬란한 슬픔의 봄’에 대한 기다림이 끝나지 않고 숙명적인 것임은 (㉢)이라는/라는 부사에 암시되어 있다. 또한 화자는 모란이 지리라는 것, 뚝뚝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소망과 보람, 믿음을 쉽게 저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이라는/라는 시어에 응축되어 있다.

<조건>

· 본문에 있는 시어를 찾아 적을 것

13. ㉡의 시어가 주는 효과에 대해 20자 내외로 서술하십시오.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표현 방법이 사용된 시구를 찾아 적으라.

<보기>
모순 형용이란 수식받는 말과 수식하는 말 사이에 모순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법이다.

15.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조건>
·의미와 효과를 같이 서술하시오.

16. <보기>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보기>
이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같이 구조적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 이라고 한다.
그런데 ㉡는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에 어긋난다. 정상적인 어순으로 바꾸어 본다면 (㉡) 과 같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언어 배열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기법을 (㉢) (이)라고 하며 이런 표현기법을 사용함으로써 (㉣)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17. (가)와 (나)의 ㉠.㉡ 부분의 표현방법을 적고 그 의미를 각각 기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위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예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19. ㉠, ㉡에 담긴 정서와 태도에 대해 기술하시오.

<조건>
 ·숙명, 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
 ·‘㉠은 ~의 태도가 나타나고 ㉡는 ~의 정서가 나타난다’ 형태로 쓸 것

20. <보기>에서 ‘모란’과 의미가 유사한 시어를 찾아 적고 그 공통되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보기>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에도 /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
 어선 지고 /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
 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
 (超人)이 있어 / 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

18. (가)와 (나)의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조건>
 ·표현상의 공통점을 찾아 적을 것
 ·표현의 효과에 대해서 적을 것

정답 및 해설

1. <답>

<보기>는 일제 치하의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정신력으로 상황을 초극하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보기>와 비교하여 '개인의 내면 세계에만 치우쳐 일제 강점기라는 민족적 현실을 외면하였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2. <답>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화자에게 모란은 가장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대상이기 때문에 모란이 지면 화자는 한 해가 다 가버린 것처럼 삶의 의미가 없음을 느낀 것이다.

3. <답> 찬란한 슬픔의 봄을

봄에 모란이 필 것을 생각하는 찬란한 환희의 마음과 모란이 질 때 느껴지는 상실감과 슬픔의 이중적 마음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4. <답> 초조(기대) - 기쁨(환희) - 설움(슬픔)

5. <답> 좌절(상실감)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모란이 지고 말면)

모란 상실의 내용이 드러난 구절을 찾아 적으면 된다.

6. <답> 모란은 삶의 보람, 인생의 아름다움, 완전한 미(美)를 의미한다.

7. <답> 비로소, 아직

화자는 모란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며 모란이 지는 현실에 슬퍼하는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8. <답> 봄, 보람

9. <답> 오월 어느, 서운케 무너졌느니

10. <답>

'아직'을 넣어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기다리겠습니다'를 '기다리고 있을테요'로 바꾸어 여성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11. <답>

수미상관의 사용과 '-르 테요'의 반복, 'ㄴ, ㄹ, ㅁ, ㅇ'

의 울림소리를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였다.

12. <답> 모란, 아직, 비로소

13. <답>

'똑똑'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모란'이 낙화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상실감을 강조하였다.

14. <답> 찬란한 슬픔의 봄을

15. <답>

㉠은 화자가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소망의 크기와 정감의 깊이를 구체화하여 강조한다.

16. <답> ① 수미상관, ②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③ 도치법, ④ 주제를 강조하는

17. <답>

(가)에서는 역설법이 (나)에서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역설은 표면적으로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진실을 내포하는 것이고 반어는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18. <답>

(가)는 '찬란한 슬픔의 봄', (나)는 '엄동혹한 일수록 / 선연히 피는 성에꽃'에서 모두 역설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9. <답>

㉠은 화자의 숙명적인 기다림의 자세가 드러나고 ㉡는 모란이 소멸하는 것에 대한 상실의 아픔의 정서가 드러난다.

20. <답> 초인

모란과 초인은 모두 시적 화자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궁극적 대상이다.